

추석 차례상 비용, 작년보다 올랐다

대형마트 28만원 전년보다 6% 상승 전통시장 구매비용 6만원 정도 저렴

추석 차례상 차림에 들어가는 품목 구매비용을 비교해본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6만원가량 저렴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6일 서울시 내 5개 권역생활권 7개 구의 전통시장, 대형마트, 가락시장 가락물 등 총 22곳을 대상으로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 9명이 용산구 용문시장 등 전통시장 14곳과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곳, 가락시

장 가락물을 직접 방문해 추석 주요 성수품 구매비용을 조사했다. 수요가 많은 36개 주요 성수품목(6~7인 가족 기준)을 중점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2만4,181원으로 대형마트 28만3,616만원보다 5만9,435원(21.0%) 저렴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비해 과일류는 평균 13%, 무·배추는 18%, 쇠고기 등 축산류는 29%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전년 대비 6% 상승했으며,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5% 상승해 전반적인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지난해보다 무거워졌다. 가락시장에 있는 가락물에서는 구매비용이 20만8,632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비해 각각 7%와 26%가량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가락물은 구입처에 비해 특히 저렴한 것으로 나타

났다”고 밝혔다. 가락시장을 기준으로 살펴본 추석 농수축산물 가격전망에 따르면 과일류는 예년보다 추석이 일러 현재는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 하지만 사과와 배 등은 추석 전 출하량 증가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채소류는 생산량 증가로 가격 안정세가 전망된다. 수산물도 대부분 평년 시세이거나 가격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은 여름 휴가철과 코로나19에 따른 가정 소비 증가로 가격이 상승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물가 변동 가능성이 높은 추석 성수품 특성을 감안해 공사 홈페이지에 주요 품목 가격과 거래동향을 추석 전까지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번개장터, 앱 전면 개편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는 이용자가 선호하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상품을 살펴볼 수 있도록 앱을 전면 개편했다고 6일 밝혔다. 이용자는 패션잡화·디지털·가구 등 거래가 활발한 카테고리 900여개 브랜드 중 선호하는 것을 20개 이내로 팔로우하고, 메인 화면의 ‘브랜드 팔로우’ 기능을 통해 관심 브랜드의 새 게시물을 모아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번개장터는 하루에 업로드되는 약 9만 개의 상품을 분석해 브랜드 단위로 자동 분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번개장터는 이용자가 중고상품을 선택할 때 브랜드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앱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번개장터 검색 트렌드에 따르면 상위 검색어 50개 중 브랜드명이 28개로 주류를 차지했다. 정용준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이번 앱 개편으로 이용자가 자신의 취향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취향 기반 중고거래 서비스’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 조직문화 선편

현대엔지니어링이 새로운 조직문화 슬로건으로 ‘엔지니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회사’라는 의미의 ‘엔지니어스 플레이그라운드’를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온라인으로 조직문화 선편식을 열어 새 슬로건을 공개하고 4가지 조직문화 코드(자율·협업·수평·도전)를 제시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새 슬로건에 대해 “엔지니어가 마음껏 뛰어놀면서 역동적으로 가진 역량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지향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4가지 코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 등 변화, 직원 중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의 증가와 직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엔지니어의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이와 관련한 8가지 행동규범도 제시했다.

신보, 혁신아이콘 6기 모집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혁신기업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고속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신보의 대표 스케일업(Scale-up) 프로그램 ‘혁신아이콘’의 6기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27일까지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창업 후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신산업 영위기업 중 연매출 5억원 이상이고 27개년 평균 매출성장률 10% 이상인 기업 또는 2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5개의 혁신아이콘을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3년간 최대 150억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돈 소리 나는 정보, ‘사랑방 머니’ 론칭

재테크·채용생활정보 시기·지역별 맞춤 안내

광주 시민의 경제생활 지킴이 사랑방 미디어가 재테크·환인, 각종 지원·복지 정책, 채용 등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정보를 특화한 ‘머니(Money)’ 코너를 선보인다. 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사랑방 머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 정책부터 직장인과 주부, 2030세대의 재테크에 도움이 될 만한 경제생활 콘텐츠를 제공한다. ‘사랑방 머니’는 ▲키워드 알아보기, ▲경제소식 ‘오늘의 머니 키워드’를 비롯해 ▲돈 버는 정보·돈 아끼는 정보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제공하는 복지머니 ▲오늘 꼭 챙겨봐야 할 정보를 모은 한눈에 해택 ▲동네소식 ▲부동산 머니 등으로 구성된다. 머니키워드는 취업준비생, 자영업

자, 주부, 직장인 등 각계각층 시민을 위한 맞춤형 경제정보와 생활 속에서 돈을 벌고 아낄 수 있는 재테크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부동산, 금융권 소식 등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정보도 만나볼 수 있다. 복지머니에서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 청소년, 청년, 주거주택 등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함으로써 몰라서 놓치는 해택이 없도록 돕는다. 이 밖에 일정보·동네별 맞춤정보를 제공해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조경선 사랑방미디어 대표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시민들을 위해서 모르면 손해 보는, 소소하지만 쓸쓸한 생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롯데백화점, 올인원 의료기기 제품 선편

롯데백화점 광주점 9층 테일 브라운매장에서는 간편하게 의류를 손질할 수 있는 기기를 선보이고 있다. ‘테일 엑시오’는 다리미와 다리판 그리고 고스티머 기능까지 결합된 올인원 제품이다. /롯데쇼핑 제공

신형 카니발, 출시 1년만 10만대 판매

기아의 신형 카니발(사진)이 출시 1년 만에 국내 판매 10만대를 돌파했다. 6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출시된 4세대 카니발은 올해 8월까지 총 10만1,060대가 판매됐다. 지난해에 이어 4만3,523대가 판매됐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5만7,537대가 팔리며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승용차 모델 중에서는 올해 누적 판매량이 그랜저(6만1,762대)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판매량은 5,611대로 1위를 차지한 기아 스포티지(6,571대) 다음으로 많았다. 출시 초반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사전계약 첫날 2만3,000대의 계약 대수를 기록한 신형 카니발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속에서도 꾸준히 매달 5,000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카니발은 가성비와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국내 미니밴 시장에서 현대차 스타리아, 혼다 오딧세이, 도요타 시에나 등을 제치고 독보적인 입지를 굳히고 있다. 기존 모델보다 장거리 운행에 필요한 충전 가능들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이고, 4인승부터 7인승까지 시트 구성을 다양화해 활용 범위를 넓힌 점도 인기의 요인으로 꼽힌다. /서미애 기자

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 받는다

1주택 과세방식 변경 올해부터 적용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 자치립 중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길이 16일부터 열린다. 공동명의자들은 고령·장기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과세 방식이 더 유리한지 사전에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중부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처음으로 진행된다. 1주택 공동 명의자들이 단독명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주택분 중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중부세법 개정안까지 반영할 경우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는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다.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즉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공동명의자들보다 단독명의자가 유리해지는 구조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단독명의자들이 유리해지는 중부세 구조에 대해 공동명의자들이 문제를 지적하자 여당은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주는 세법 개정을 지난해 말 단행했다. 1주택 단독명의 방식으로 과세 전환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 /연합뉴스

오리지널 두유 - 베지밀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 시니어 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신제품 출시★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 하루씩 건강매뉴

- 배 건강 위한 검은콩, 고칼슘, 비타인D
- 필수 단백질 효율 강화 메티오닌
- 두뇌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엔
- 항산화 영양성분 이연거, 셀레늄(S)
- 건강한 당 설계 결정당, 올리고당

1주 무료! 전국대도시 1577-0426 수원 트러스트 www.edaymail.com 1문의 고객상담실 080-800-8888 (02)553-8888 www.v9genil.co.kr
 ● 서울·경기: 동부영양소 (02)924-4987, 북부영양소 (02)989-3192, 남부영양소 (02)929-8999, 서부영양소 (02)929-8999, 중앙영양소 (02)929-8999, 동남영양소 (02)929-8999
 ● 충청영양소 (02)929-8999, 전북영양소 (02)929-8999, 전남영양소 (02)929-8999, 경북영양소 (02)929-8999, 경남영양소 (02)929-8999, 부산영양소 (02)929-8999